



교육연합신문



2026년 2월 25일 (수) 제438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오피니언리더스-이현우 의원 ▶4면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골목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의원님, 이제 밤길이 무섭지 않아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 온 불안과 안도의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골목은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있었다.



에듀서포커스-윤건선 교육감 ▶7면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윤건선 교육감이 정년퇴임을 맞는다. 교사로 교단에 선 뒤 교감·교장(인천국제고), 장학사·장학관을 거쳐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한 개인의 이력을 넘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지원해 온 ‘교육의 시간’...



인터뷰-피겨 국가대표 이해인 ▶10면
지난 1월 ‘제8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 선수권대회 겸 2026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쇼트 프로그램의 부진을 프리 스케이팅에서 만회하며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이해인 선수들...

“행정통합,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 기회로” 김대중 전남교육감, 직무평가 2개월 연속 전국 1위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육재정 총량 반드시 확보... 실질적 교육자치 완성해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2월 12일 지방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통합의 거대한 흐름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취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재정 절벽’ 위기 속에서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의 공동 대응,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설명 과정 등을 통해 보통교육제도를 유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지형 전체가 재편되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

존의 칸막이에 머문다면 결국 일정한 반행정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며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교육재정의 총량을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맞춤형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노후학교 개선 등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안정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보충교부금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통합이 교육예산 삭감이나 교육자치 훼손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

김대중 전남교육감, 직무평가 2개월 연속 전국 1위

행정통합 정국 속 리더십 부각... 제주 김광수·울산 천창수 2·3위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사진)이 26년도 새해 첫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통합 의제의 교육적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안정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매일 실시하고 있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월 교육감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김대중 교육감은 53.0%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지만, 2개월 연속 선두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구조, 통합교육감 선출 방식,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확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글로벌 미래 교육’과 연계한 ‘초광역 교육’을 제시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어 2위는 김광수 제주교육감(52.5%), 3위는 천창수 울산교육감(50.7%)이 차지했다. 이어 임종식 경북교육감(45.7%), 박종훈 경남교육감(44.0%), 김지철 충남교육감(43.9%), 강은희 대구교육감(43.8%), 윤건영 충북교육감(42.2%), 김석준 부산교육감(40.1%), 설동호 대전교육감(39.0%), 신경호 강원교육감(36.2%), 도성훈 인천교육감(36.1%)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이전선 교육감은 이번 공

개 순위(1~12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5년 12월 평가에서는 11월 대비 6.1% 하락한 36.3%를 기록하며 12위에 턱걸이 한 바 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감이 1위를 차지했지만, 광주교육감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극명한 대비를 보이자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5년 12월 29~31일, 2026년 1월 29~31일 전국 18세 이상 1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3.3%다.
한편, 전북과 세종교육감은 순위권 밖으로 제외됐으며, 13위 이하 하위권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성식 기자 2580news@daum.net

백승아 “영양교사 형사 송치, 교육 현장 책임 구조 왜곡”

국회 교육위 의원들 탄원 동참... 검찰에 신중한 법리 판단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영양사협회와 경기도영양사·경

기도영양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 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

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한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숙 의원,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과 현지 학교 영양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영양사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혐의 적용에 대해 신중하고 정당한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병선 기자 kbs@

“행정통합,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반드시 이어져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만나 서한 전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이 지방교육재정 증액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

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일각에서 행정통합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방세 비율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전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지역적 여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해야 한다”며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에게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했던 김 위원장과 해당 문제를 심도 있게 공유했다. 김병선 기자 kbs@

조달청 우수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성능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 케이시스 스마트 자동화 공장

SMT라인

아우터라인

어셈블리라인

에이징룸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700건 이상 구축'

15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기술 파트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온양한울중·고등학교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

천안고등학교 시청각실

영등고등학교 시청각실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제품문의

1600 - 6187

부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센터리움 IT타워 411호

대전 | 대전 유성구 북용동로 43 도안더리브스그니처 749호

광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주 | 제주시 서문로 33

미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모라동) 백양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센터리움 IT타워 B110호

동물복지 증진·건강한 반려문화 정착

대한수의사회-더마글루,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더마글루(대표 김재봉)가 국가 중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공식 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동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갈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성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대한수의사회는 전국 수의사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

할을 맡는다. 더마글루는 수술 비용을 줄여주는 3M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벅글루를 국산화했다. 이 제품을 통해 사업의 안정

적 운영과 현장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마글루 김재봉 대표는 “동물복지 증진과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용성 기자 ays@

社說

실질적 지원 없는 학맞통, 공교육 붕괴를 가속할 것인가

교육부의 ‘학묘맞춤형 교육지원 체계(학맞통)’는 현장에 업무 폭탄을 투하했다. 교청은 이번 대책이 공교육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인력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발표에는 실질적인 ‘학교 밖 지원’ 대책이 빠져 있다. 행정 업무의 외부 이관이나 전담 인력 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력 확충 없는 협업 강조는 교사에게 업무를 독박 씌우는 결과만 낳는다. 교사는 잡무에

시달려 본연의 교육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교육부는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행정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인력 없는 시스템은 관리와 입력이라는 새로운 짐일 뿐이다. 구체적 운영 계획 없는 협업은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긴다.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 현장

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업무 주체가 불분명한 정책은 결국 갈등 폭발의 도화선이 된다.

교육부는 ‘협업’이라는 말로 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 등 체감 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정책의 최우선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황령산 김소월 길, K-문학 품은 머무는 공간으로 조성”

정태숙 부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걷는 길 넘어 ‘K-문학 향유하는 공간’ 중요성 제기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1월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생태숲에 조성된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에 이어서 머무를 수 있는 ‘K-문학 향유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령산 둘레길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생태·문학·관광이 결합된 생태문화관광 콘텐츠로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2024년 10월부터 2.3km 구간에 ‘김소월 시와 함께 하는 길’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김소월 시인의 시가 새겨진 시비와 진달래·꽃무릇·수선화 화단, 울창한 편백숲

길과 연계된 ‘K-문학 향유 공간’이야말로 부산만의 특색있는 즐길거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2025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달성했고, 2026년에는 5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쇼핑과 먹거리 중심의 관광을 넘어,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에서 자연과 함께 K-문학을 체험하는 콘텐츠야말로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김소월은 250여 편의 시를 남긴 대한민국 대표 시인으로, 그의 시를 비롯한 K-문학을 감상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러시아의 푸시킨, 칠레의 네루다, 인도의 타고르처럼 국민 시인을 도시의 문화 브랜드로 키운 세계 도시들처럼, 부산도 ‘K-문학 중심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김소월 길로 시작한 이 도전은 이제 공간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며, “자연의 걸고, 시를 읽으며, 문학의 품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영규 기자 hog@

김대중 교육감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완의 단죄”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아쉬워”... 전남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강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사필귀정이지만 미완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중요임무중상자들

의 유죄를 인정하는 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구형보다 낮은 형 또는 무죄가 내려진 것은 아쉽다”며, “반역

사범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급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학생 대상 헌법 강연, 계

령 교육자료 보급,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지원, 헌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헌법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헌법교육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 교육감은 “상급심 진행 과정 역시 교육의 생생한 자료로 삼겠다”며,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상석 기자 2580news@daum.net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크리플
Creative People
www.creple.co.kr

여수 진성여고 보건간호과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국외팀 선정

작년 2·3학년 이어 올하는 1학년이 주역... 2년 연속 선정으로 글로벌 도전

전남 여수 진성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영호) 지난 2월 13일 보건간호과가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with AI’ 국외 활동팀에 2년 연속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전남 보건 교육의 요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베트남 문화교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학교의 위상을 높였던 2·3학년 선배들의 뒤를 이어, 올하는 1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돼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올해 선발된 진성여고 보건간호과 1학년 팀은 지난 1년간 교내외를 넘나들며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들은 ▲이중언어공부방 학습 보조 ▲여수시노인복지관 재능 기부 ▲



유기견 보호소 산책 보조 ▲보건간호와 체험 부스 운영 등 학업과 병행하기 힘든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심사위원단 역시 1학년 학생들이 보여준 이 같은 압도적인 활동량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2년 연속 국외팀 선정의 영예를 안긴 것

으로 알려졌다. 이번 활동을 이끈 보건간호과 1학년 배하울 학생은 “지난 1년간 정말 최선을 다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대표로서 리더십을 기르고 팀원들과의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다”며,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국외팀 선정’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활동에 임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성여고 보건간호과는 이번 선정을 발판 삼아 학생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견문을 넓히고, AI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의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태석 기자 2580news@daum.net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7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제, 드론 산업·스포츠 중심지 도약 시동

경기교육청,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본격 가동

인제군드론스포츠협회, 비전 선포... 재난·실종자 수색, 스마트 농업 등 중점 추진

태국·튀르키예·뉴질랜드 3개국 방문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확보

강원도 인제군드론스포츠협회(회장 임건우)는 2월 20일 오후 6시 원통종합복지타운에서 '2026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제군을 대한민국 드론 산업과 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이 제시됐다.

협회는 특히 인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재난·실종자 수색 ▲산불 조기 발견 및 산림 보호 ▲스마트 농업 ▲관광 콘텐츠 제작 ▲드론 스포츠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인제군드론스포츠협회는 앞으로 드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자격 취득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복합센터 구축을 추진해 연구개발,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지역 성장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표했다. 협회는 인제경찰서 및 자율방범연합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긴급 드론 운영체계 구축, AI 기반 드론 운용 훈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해 '드론 없는 안전'은 생각할 수 없는 인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드론 활용분야 영상이 상영돼 '안전·미래·혁신'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했으며, 행사 후에는 최신 드론 장비 시연과 체험 프로그램, AI 드론영상분석플랫폼 등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는 향후 세계드론스포츠연

합회(회장 우현호)와 협력해 드론 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및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고, 인제군을 국제 드론 스포츠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건우 회장은 "드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 안전과 경제,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군민과 함께 인제의 하늘을 안전과 희망, 새로운 경제 활력으로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우현호 회장은 인제군의 드론 스포츠, AI 드론 활용 분야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기 기자 pym@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 방문으로 구축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2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월 중 해외 3개국 방문 성과를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성과 보고회'를 2월 6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방문 추진단의 경험·성과 공유와 2026년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추진단이 발굴한 30여 개 해외 학교 및 교육기관 정보를 경기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박숙영)과 공유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학교와 외국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연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1월 추진단은 유엔(UN) 참전국인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를 방문해 현지 교육청, 지방정부, 초·중·고교 등을 방문했다.

태국에서는 중등교육청 및 방콕 소재 주요 학교들과 온라인 국제교류수업, 교원 연수 교류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튀르키예에서는 네브세히르 주(州) 교육청 및 주청(시장)과 면담을 통해 교육·문화·청소년 분야 전방위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스탄불 펜딕 구(區) 교육청과도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뉴질랜드



에서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한국 문화(K-컬처)와 마오리 전통문화 간 융합 교육, 에듀테크 기반 공동수업 등 실질적 협력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초등 및 중등학교 14개교, 교육청 및 지방정부 9개 기관, 현지 한국교육원 등 교육기관 5개 등 총 30여 개의 해외 교육 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교육청국제교육원은 추진단이 발굴한 해외 학교 및 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는 학교급별, 지역별, 교류 희망 분야별로 분류돼 국내 국제교류 희망교가 해외 파트너교 탐색에 따른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전망이다.

국제교육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교류협력 희망 학

교 신청 접수 ▲학교 특성에 맞는 해외 학교와의 연결 ▲양국 교사 간 사전 협의회 지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경기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연구학교 ▲유엔(UN)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우선 연결을 지원하고, 이 밖에 교류를 희망하는 일반 학교도 신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 서해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학교 교류를 넘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입체적 협력 체계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학교라는 목표를 갖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전남교육청,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 내실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순회 영양교사 지원 유아기 식생활 교육 강화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2월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급식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유치원 급식의 위생과 안전, 영양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유아의 건강을 고려한 위생·안전 중심의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교육청은 학교급식이 유치원에 적용된 지 5년째를 맞이한 올해를 기점으로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이 체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 순회 영양교사를 지원하여 위생·영양관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유아기 식생활 교육을 강화해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2024년 '유치원 급식 영양관리 자료집' 발간과 2025년 '유아 영양·식생활교육 교구 및 워크북' 제작에 이어, 찾아가는 맞춤형 급식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놀이 중심 식생활교육을 기반으로 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유치원 급식·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급식운영관리, 영양관리 강화, 영양·식생활지도,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 유치원 급식 전반의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사레로 보는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 교육을 통해 현장에

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관리 방안을 제시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박재원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현장의 급식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계획을 토대로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유치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석 기자 2580news@daum.net

서울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

19개 협력병원과 업무협약... 2년 주기 정기 검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장근식)은 2월 5일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 19개 협력병원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학교 급식 현장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조

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폐암 검진을 실시해 왔으며,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병원

선정 등 폐암 검진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년부터 폐암 검진이 정례화 되면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1차 검진에서 '폐암 의심'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2차 정밀 검진도 지원된다. 검진 전 과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과 협력병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보건안전진흥원을 중심으로 모바일 문진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검진 대상자 병원 연계, 검진비 지원, 검진 결과 통합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약 6,470명은 서울시 내 19개 협력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병선 기자 kbs@

한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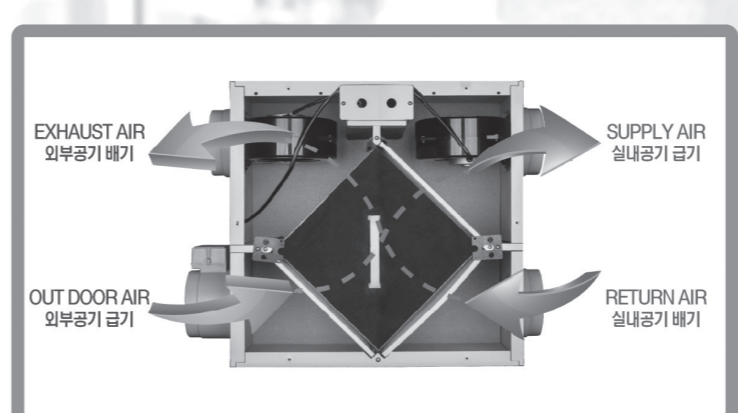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오피니언리더스 | 이현우 부산서구의원

이현우 의원 “정치는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골목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의원님, 이제 밤같이 무섭지 않아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안과 안도의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골목은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있었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계단 난간은 손으로 잡으면 흔들렸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기가 마르지 않아 미끄러웠고, 어르신들은 늘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집으로 향해야 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시설 보수’일지 모르지만, 그곳을 매일 오르내리는 주민들에게는 하루의 안전이 달린 문제였다.

그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좀 봐주세요. 넘어질까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멈춰선 사람이 있다. 바로 이현우 의원이다.

■ “민원은 숫자가 아니라 열골입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밤의 밝기와 그림자, 계단의 경사와 난간의 흔들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 단순 요청이 아니라 예산 반영 가능성과 공사 시기, 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이현우 의원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정치 우리는 어쩌면 그런 정치인을 오래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민 불편 최소화 방안까지 꼼꼼히 챙겼다.

조명은 교체되었고, 난간은 보강되었다. 몇 주 뒤, 같은 어르신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손 주 손 잡고 다닐 수 있어요.”

그 순간, 그 골목은 단순히 밝아진 것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감정을 되찾았다. 이 의원은 말한다. “민원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일상이 바뀌면, 그게 정치의 이유입니다.”

그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정치는 언제부터 보고서와 통계가 되었는데, 정치는 원래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아니었는가.

■ 지역일꾼의 자세

그는 자신을 ‘의원’보다 ‘지역 일꾼’이라 부른다. 큰 정책보다 주민 한 사람의 불편을 먼저 살핀다.

통학로의 균열, 경로당 냉난방 문제, 상인의 간판 조명, 폭우 뒤 배수로 정비... 작은 민원 하나라도 가볍게 넘지 않는다. 민원을 듣고, 현장을 걷고, 행정과 연결하고,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다시 현장을 찾는다. 그 반복 속에서 신뢰가 쌓인다. 주민들은 말한다. “연락 하면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이다.”

“결과를 꼭 알려준다.”,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은 이름이 ‘서구 해결사’다.

하지만 그가 해결하는 것은 단지 시설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불안이 덜어지고, 일상의 안정이 되돌려 주는 일이다.

■ 봉사에서 배운 정치

겨울 부산연탄은행 나눔 봉사 현장에서, 폭염 속 경로당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태풍이 지나간 뒤 파손된 시설을 살피는 골목에서. 그는 늘 먼저 와 있었다. 누군가는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는 웃으며 말한다. “이웃이 불편하면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직업이 되기 전에, 그는 먼저 이웃이었다. 그래서 그의 정치는 따뜻하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손을 내민다.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주민의 말을 먼저 듣는다.

■ 정치의 본질을 다시 묻다

정치는 멀리 있지 않다. 골목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는 순간, 그곳이 정치의 자리다.

이현우 의원이 밝힌 골목은 어쩌면 작은 공간일지 모르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주민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어두웠던 길이 밝아졌고, 흔들리던 난간이 단단해졌으며, 무심던 밤길이 안심의 길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정치의 이유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부산 서구에는 오늘도 묵묵히 골목을 걷는 한 지역 일꾼이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정치. 우리는 어쩌면 그런 정치인을 오래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황우규 기자 hog@

부산 남구, 제21기 등대빛 아카데미 1강 성료

방승인 겸 개그맨 서경석 씨 강연 등 웃음과 공감 속 새해 다짐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2월 3일 오후 7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제21기 등대빛 아카데미’ 제1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방승인 겸 개그맨 서경석 씨를 초청해 ‘작은 목표, 큰 변화(웃음과 지성으로 여는 새해의 도전)’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남구민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서경석 강사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 진솔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공감 가는 사례는 강연장을 웃음과 박수로 채우며, 참석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었다.

강연에 앞서 오은택 남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등대빛 아카데미는 주민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배움의 등대이자, 함께 성장하는 남구를 만드는 소중한 평생학습의 장”이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해 주



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구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힘이 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배움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평생학습 도시 남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가볍게 웃으며 들을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새해를 맞아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등대빛 아카데미는 인문·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강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배움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등대빛 아카데미는 남구민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영원 기자 juy@

부산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전통문화 우수성 알린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념 특별기획전 공동개최 위한 업무협약



한편, 부산박물관은 1978년 개관 이래,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하며 시민들과 공유하는 부산의 대표적 박물관으로 국내외 유수의 박물관과 교류하며 지역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박물관은 개관 이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내 주요 박물관은 물론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기획전을 개최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 덴버미술관과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2024),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과 ‘거장의 비밀: 셰익스피어로부터 500년의 문화와 예술’(2025) 전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을 초월한 국제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선 왕실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며, “세계인의 시선이 부산으로 모이는 시기에 발맞춰 고품격 전시를 준비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원 기자 bse@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동두천시, 지역교육협력 업무협약

지역 특성 반영한 학교 맞춤형 교육·학생 심화 학습 체계적 지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과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2월 4일 동두천시청에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동두천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체류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교육 운영과 지역교육 자원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등을 통해 학생의 심화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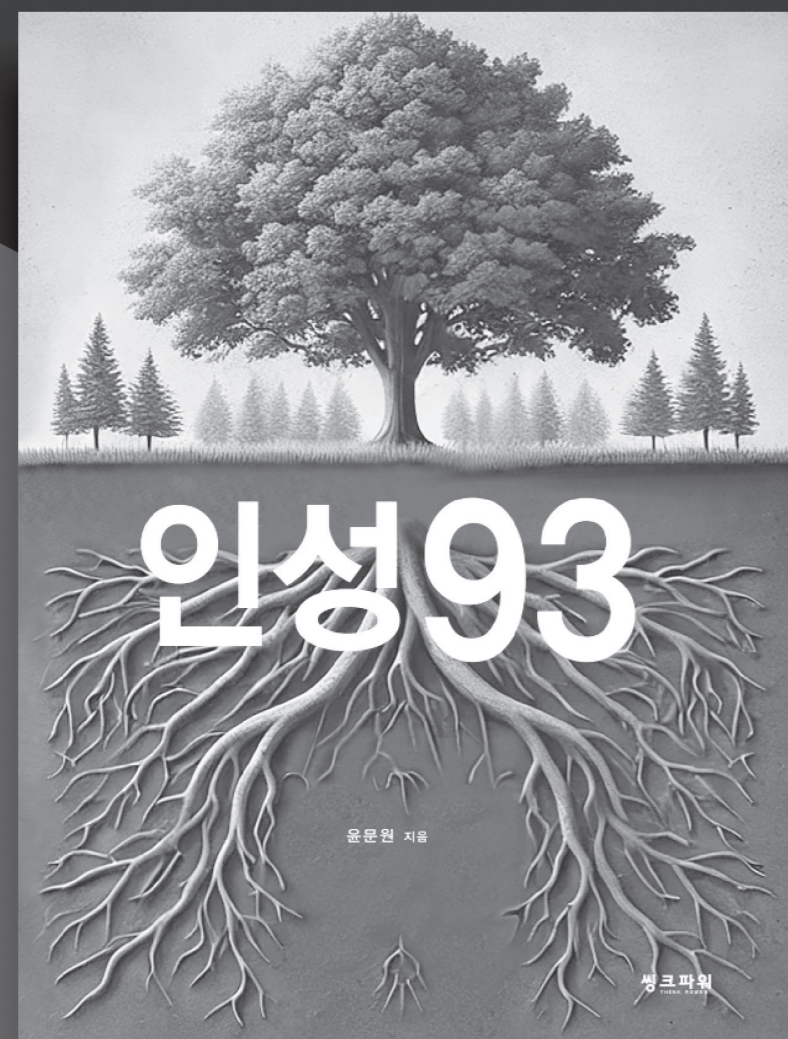
지원사업 자문 및 프로그램 기획, 발굴, 성과 관리 지원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지원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 파트너십 구축 ▲동두천시 소속 산하 기관, 재단 등 교육지원청의 경기공유학교 연계 등이며, 프로그램의 종류와 지원 규모는 동두천시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매년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과 교육과장, 박형덕 동두천시시장과 자치행정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 후 지역교

육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지원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교육력 제고 및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교육2세터 공교육 확장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지자체-교육청 간 파트너십 기반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기대된다.

신상민 기자 ssm@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랑,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서울교육청·매경미디어그룹 특성화고 금융·경제교육 강화

민·관 협력 직업계고 청소년 경제역량 강화... 올해부터 학교 방문형 실전 교육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은 2월 19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특성화고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로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전형 금융·경제교육을 제공해 실무 경제 분야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태진 전 한국 JP모건 회장, 사업 참여 특성화고 교장단(5교) 등이 참석해 협약 취지와 향



후 협력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매경미디어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융시장·거시경제·직업 세계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 제공 ▲민·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 경제교육 기반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 사기 예방, 자산 관리의 기초, 거시·미시 경제 이해, 금융 분야 진로 탐색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경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산·학 협력을 확대해 직업계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력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민·관 협력형 경제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적인 경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정근식 교육감 "학사모 쓴 모습 훈장보다 더 빛나"

서울교육청, 초·중 학력 취득 문해교육 이수자 668명 졸업식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중학 학력을 취득한 만학도 668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력 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초·중학 학력을 취득한 졸업생 668명과 가족, 지인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52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각자의 사연을 담고 값진 졸업장을 품에 안게 됐다.

특히 박순애 학습자(62)는 자녀의 권유로 학업을 시작해 99%의 출석률을 기록하며 "이제는 문해

교원이라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라고 전하며 학습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시력 상실과 신체적 고통을 이겨내고 학업을 마친 최이순 학습자(77), 고령에도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하며 열정을 보여 준 박희화 학습자(81) 등 감동적인 사례들도 졸업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행사는 품물패연회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학력 인정서 수여 △우수 학습자 교육감 표창 △시 낭송 및 졸업생 답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자의 자작시 낭송은 만학도들의 진솔한 삶과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감동의 시간이

가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재 약 2000여 명이 참여 중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2026학년도에는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를 위해 중학 과정을 6학급 추가 확대해 총 145학급을 운영하며 배움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사모를 쓴 여러분의 모습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고 위대하다"며 "졸업생들이 걸어온 모든 과정은 이미 훌륭한 인생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성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도약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SEM119 갈등조정단 '봄' 출범

총 46명 전문가 구성 조기 개입으로 악성 민원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월 20일 교육공동체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확산되기 전에 전문가가 조기에 개입해 사안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이 조기 대응 부재로 반복 민원이나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갈등이 적절할 시점에 조정되지 못할 경우 감정적 대립이 심화돼 악성 민원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해 사실관계를 정리하

고, 당사자 간 안전한 대화를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갈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갈등이 악성 민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적 해결을 우선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갈등조정단 '봄'은 갈등으로 얼어붙은 관계가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따뜻한 불처럼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복과 상생을 지향하는 서울교육의 갈등 대응 철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서울SEM 갈등조정단 '봄'은 교육전문가와 조정전문가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갈등 조

기 단계부터 현장에 투입돼 회복 중심 조정을 지원한다. 갈등조정단은 지역교육보호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하되 필요 시 병행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이전 단계에서 관계 회복을 통한 근본적 갈등 해소에 주력한다.

갈등조정단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 체계인 SEM119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교육공동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사안이 악화되기 전 소속 교육지원청 SEM119(☎02-1395)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갈등 초기부터 조정단과 연계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26년 2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갈등조정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분쟁과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모든 학교 탄소중립 실천

일회성 행사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 상시관리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월 9일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6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시행해 온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제로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학교가 스스로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실천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진단·계획·실천·환류'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교의 탄소중립 활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학교 탄소중

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새롭게 도입한다. 모든 학교는 해당 도구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우리 학교 실천 과제'를 선정, 연중 실천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가진단 도구와 함께 실천 안내서를 모든 학교에 제공해 현장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 44교를 지정해 보다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점 학교에는 실제 에너지 사용 자료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자료가 제공되며, 전담 연구원이 매달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별 탄소 감축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중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냉난방기 관리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이를 통해 냉난방기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크전력·대기전력 관리와 불필요한 냉난방기 사용 최소화 등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확산을 위해 학년 말 '학교 탄소중립 실천 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 실천 학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 학교는 탄소 배출 질감 성과와 교육공동체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학교를 선정하며, 선정 학교에는 학교 명의로 참여하는 나무 심기 체험 행사 기회도 제공한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영유아 그림책 놀이 개발

어린이집까지 교육 지원 확대·교사 연수도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월 12일 생애 초기 독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0~2세 영아를 위해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나 질 높은 독서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생애 초기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간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에 맞춰 영아편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와 유아편 '그림책 놀이 교육·보육과정 실행하기' 등 총 2편으로 구성됐다.

자료에는 그림책 놀이 사례 33차시를 비롯해 교사용·부모용 동영상 12종, 부모 교육용 카드뉴스 10종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교사의 현장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가정과 연계한 부모 교육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병선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전남 구례간문 초등학교, 담양창평중학교 외

복지시설 / 경로당
서울강동 종합사회복지관, 중평군 신동리 경로당

지자체 / 관공서
단양군청 산림복지과, 진해 군항제 외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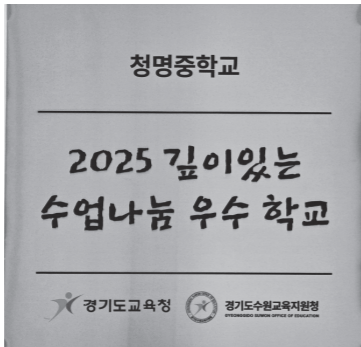
수원 청명중, 깊이 있는 수업나눔 우수교 선정

전 교사 참여 동료장학 수업 공개 체계 구축... 학교 밖 수업혁신 선도 거점 역할도

경기도 수원 청명중학교(교장 박미경)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5 중등 깊이있는 수업나눔 우수교' 현판 수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12월 밝혔다.

이번 선정은 동료장학에 기반한 일상적 수업 공개와 나눔 문화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공동 명의로 수여됐다.

청명중은 전 교사가 참여하는 동료장학 수업 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교과군별 수업나눔 협의회를 정례화해 수업을 '평가'가 아닌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인식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일 교과군별 수업 공개를 운영하며 수업 설계 의도, 발문 분석, 학생 참여 양상, 평가 준거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명중은 IB 후보학교 운영을 기반으로 탐구 중심 수업을

확산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단원 재구성, 수행평가 및 루브릭 공동 설계, IB Unit 분석 등 수업-평가 일체화를 실천해 왔다.

국어·수학·과학·사회·예체능 등 전 교과에서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이 일상화되며 학생 참여형 수업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교사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수업 공개 문화도 주목받고 있다. 상·하반기 IB 후보학교 공개수업은 교사의 참여 희망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공개수업 이후에는 전 교사가 참여하는 수업나눔 협의회를 통해 교과 간 경계를 넘는 자유로운 피드백과 성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 내 수업나눔에 그치지

않고, 수원 수업나눔 한마당 강사 참여, IB 수업 설계 파견,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공개수업, 경기과학탐구 공개수업, 진로교육 실천 사례 발표 등 지역 교육공동체로의 수업 확산에도 적극 나섰다. 이를 통해 청명중은 학교 밖 수업혁신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명중 박미경 교장은 "이번 선정은 전 교사가 함께 만들어 온 수업나눔 문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수업혁신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학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교육청평생학습관, 청소년·성인 함께하는 '달빛독서'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주제 도서 선정... 온라인 소통형 독서로 지역 독서문화 확산

경기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은 2월 18일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 '달빛독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빛독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매월 한 권의 주제 도서를 선정해 한 달간 읽고 온라인을 통해 독서 경

험과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 중심의 독서를 넘어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참여형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독서 인증과 의견 나눔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주제 도서와 연계한 온라인 독서 강의를 통해 책에 대한 이해

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주제 도서는 ▲3월 총, 균, 쇠 ▲4월 열두 발자국 ▲5월 사피엔스 ▲6월 신곡 ▲7월 정의란 무엇인가 ▲8월 논어, Tuesdays with Morrie ▲9월 모비 딕 ▲10월 1984 ▲11월 특이점이 온다 등

김병선 기자 kbs@



동두천외고, 대만 ASEP 참가 국제교류의 장 열어

국제 공동 발표 '우수상' 수상... 홈스테이·현지 수업·K-POP 댄스 공연까지

경기도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교장 김성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아시아 학생 국제교환 교류 프로그램(ASEP)에 참가해 국제적 소통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국제교류는 대만 가오슝 지역 고상상업고등학교와 고산고중과의 학교 간 교류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동두천외국어고 학생들은 현지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실제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약 3일간 ASEP 대회 준비를 위한 공동 연습과 협업 활동을 진행하는 등 깊이 있는 문화·교육 교류를 경험했다.

ASEP는 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국가별 2개국씩 한 팀을 이뤄 '스마트한 환경 실천: 정소

년'이 설계하는 미래 도시(Smart Environmental Actions: Youth Designing Future Cities)'를 주제로 약 8분간 공동 발표를 펼친다.

동두천외국어고 학생들은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본 대회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활용한 국제 공동 발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도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공유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을 실질적으로 기를 수 있었다.

특히 27일 오후 열린 ASEP 문화공연에서는 동두천외국어고 학생들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며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K-POP 댄스 공연으로 'Your Idol'을 비롯해 'Soda Pop', 'Like Jennie', 'Yes or Yes' 등의 무대를 선보이며 아이돌 공연을 방불케 하는 완성도 높

은 퍼포먼스로 한류 문화의 위상을 생생히 전달했다. 공연 이후에는 대만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문화적 공감과 우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실제 상황에서 적극 활용하며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협력하며 다문화 이해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동두천외국어고 중국어교육부 부장교사는 "ASEP 국제교류는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고양교육지원청, 유아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개발 성과 공유

'첫걸음' 자료도 함께 공개... 놀이 중심 실천 사례로 현장 적용력 강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은 2월 12일 고양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유아교육 전문가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고양교육발전특구 유아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개발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고양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유아기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양교육지원청이 현장 교사를 위해 개발한 '교사를 위한 유아 디지털 교육 첫걸음'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해당 자료는 디지털 교육을 처음 접하는 교사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실천 팁을 담아 현장의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행사는 ▲유아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및 교사 지원 자료 개발 결과 발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담긴 놀이 실행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예절과 책임을 익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살피고, 현장 적용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아 디지털 교육자료 2종'(교사를 위한 유아 디지털 교육 첫걸음, 놀이로 배우고 실천하는 유아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선물로 배부하고, 놀이온(ON) 사

이트를 통해 관련 놀이 자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숙 교육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유아기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에 개발된 '첫걸음' 자료가 현장 교사들에게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디지털 세상을 만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홍인시 '어상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2. 향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유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경기국제교육원, 교원 역량개발 시스템 'G-LINK' 도입

데이터 중심 맞춤형 개별·집단 분석... 학습 경로 추천 교원 성장 지원

경기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박숙영)은 2월 15일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교원 역량 개발 시스템 'G-LINK(GIGE Level Indicator for Navigating Key Competences)'를 개발·적용하며 교원 연수 체계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G-LINK'는 연수생의 역량 수준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도구다. 온라인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량·정성 자료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개인 및 단체별 성취도와 보완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국제교육원은 평가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G-LINK 전담반'을 구성했다. 지속적인 문항 개발과 검증 과정을 거쳐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연수생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추천하고,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연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을 지원한다.

'G-LINK'는 올해 2월 중등 신규 임용 예정자 연수를 시작으로 국제교육 및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숙영 원장은 "단순히 연수 만족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교원의 역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별 학습 경로를 추천해 자율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교사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윤건선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걸어온 40년의 시간

2월 26일 정년퇴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화양연화(花樣年華)를 선물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윤건선 교육장이 정년퇴임을 맞는다. 교사로 교단에 선 뒤 교감·교장(인천국제고), 장학사·장학관을 거쳐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한 개인의 이력을 넘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지원해 온 '교육의 시간'으로 읽힌다. 윤 교육장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교육은 결국 사람"이라며, 제도와 성과를 넘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본질을 강조했다.

■ "교직에 미련 없던 청년이 교사가 되기까지... 운명처럼 다가온 '교학상장'"
윤 교육장의 교육 여정은 다소 독특하게 시작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즈음에도 교직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고백한 그는 육군 학사장교로 복부하며 '아이디어뱅크, 전략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제대 후에는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결국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 앞에서 다시 방향을 틀었다.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선택한 길은 교학상장(敎學相長), 즉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교사의 길이었다.

윤 교육장은 군과 기업을 거친 경험이 오히려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학생을 가르치며 번 수입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포럼·세미나·학술연구회와 각종 교과교육학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가르치며 배우는 삶"을 체질처럼 받아들였다. 특히 첫 학교에서 교장에게 연구회 원고 기고 제안을 받았던 기억은 "평교사가 인정받기 어려웠던 시절, 교육자가 성장하는 첫 문"으로 남았다. 교직 8개월 만에 사회·도덕 교과수업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은 그가 연구와 수업에 몰입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성적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진로상담"
윤 교육장이 꼽은 가장 큰 보람은 '성과'가 아니라 '개별화된 교육'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다. 고3 담

임을 7년 맡으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 중심으로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중년 교사가 되며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고백은 교육의 방향을 다시 묻는다. "그는 교직 17년을 마무리한 뒤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면서, "지원받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입장으로" 역할이 바뀌었다고 했다. 진로 업무를 맡으며 깨달은 것은 학생의 삶이 한 줄 성적표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한 여중생에게 흥미·적성·잠재력에 기반한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오랜 시간 격려와 기다림으로 동행한 끝에 그 학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찾아와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던 순간을 그는 '교직의 대가'라고 표현했다. "그 제자는 지금도 제게 소통하며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길잡이"라고 덧붙였다.

■ "교사와 교육행정가 사이... 둘 다 중요, 그러나 기준은 언제나 '현장'"
윤 교육장은 교사와 교육행정가의 역할을 "우열이 아닌 상호 필수"로 설명했다. 교사는 학생을 직접 만나 성장의 과정을 돕고, 교육행정가는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학교와 교사를 지원한다. 그는 1980년대 후반 교직 입문 이후 여러 학교에서 학생을 길러냈고, 이후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생활지도·방과후학교·교원인사, 시교육청에서 인성교육·학교폭력예방·학생안전과 건강·교육과정·진로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지원의 언어'를 축적해 왔다.

특히 교육과정 분야는 그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교육부 및 관련 학회 활동을 지속해 오며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했고, 초등 프로젝트 교육과정·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고교학점제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꿈 이음 교육과정' 등 연계 모델을 학교에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교사·관리자 연수,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병행돼 현장에 부

리내린다"는 그의 말은 행정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 "교육장의 핵심은 '정책을 현장 언어로 번역하는 일'...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한 지원행정"
교육장으로서 윤 교육장이 강조한 역할은 단순 명령·관리자가 아니라 교육감의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행정이다. 그는 인천교육의 방향인 "모두가 다 성공하는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해 학교 현장의 행·재정 지원, 맞춤형 진로지도, 융합교육, 기후·생태·환경교육까지 학교 지원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윤 교육장은 유·초·중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원에 초점을 두며,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과 건강을 토대로 학력·문화예술·독서·특수교육·세계시민교육·폭력 예방·늘봄 지원 등 다층적 지원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원행정의 실천'을 이어왔다고 했다.

■ "학교 1학생 1예술, 그리고 읽건쓰... '성장'의 언어를 학교에 심다"
윤 교육장이 특히 강조한 분야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문화예술교육, 둘째는 독서교육이다. 그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학생이 자기만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학교 1학생 1예술'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축제와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감수성뿐 아니라 향토 이해, 지역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교육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고 봤다.

독서교육은 '읽기·말하기·쓰기'의 기본기이자 사고력의 뿌리다. 윤 교육장은 '읽건쓰' 교육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정 연계 출판 지원, 역

량 강화 연수,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고, 2026년에는 가장 중심의 '책방', 가족 야간 독서캠프 확대, 학생 주도 토론 독서캠프, 필사서평쓰기 지원, 지역 서점 연계 출판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 구상을 밝혔다. "독서는 루틴이 될 때 힘이 된다"는 그의 메시지는 '기초를 세우는 교육'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 "나는 발명체가 아닌 반사체... 구성원이 빛나도록 '존이구동'의 리더십"
윤 교육장은 취임 당시 "교육장이 빛을 내는 발명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각자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반사체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 문장을 책상 앞에 두고 수시로 되새기며 스스로를 점검해 왔다고 했다. 조직 운영 원칙은 직원의 건강과 행복, 공동체 의식, 그리고 존이구동(尊卑求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되 공동의 목표를 찾는 태도)이었다.

업무 담당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되, 교육장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수요자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취약계층 학생 의료지원(무료 치료료 협약)과 같은 현장 제안형 사업이 실행될 수 있었다. 또한, 일탈 학생의 성찰과 회복을 돕는 '든든 디딤' 프로그램을 도서관·경찰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며, 처벌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생활지도로 지향했다.

■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결정... 수업보다 먼저 '관계'부터 세우는 SEL"
코로나는 교육의 방식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계 맺기와 공동체 감각을 크게 흔들었다. 윤 교육장은 원격수업과 단절의 시간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갈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가 내린 중요한 결단은 신입생 입학과 동시에 일정 기간을 '학생 적응 기간'으로 설정해 인간관계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교육과정에 적용한 사회정서학습(SEL)의 강화였다. "수업 이전에 관계가 회복돼야 배움도 회복된다"는 판단이었다. 늘봄 참여 확대에 따른 등하교 안전 문제도 주요 과제였다. 그는 지역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안전 인력 지원, AI 기반 안전관리(AI 안전울타리) 적용, 학교 안전점검·컨설팅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 "현장에서 발견한 절실한 과제... 방충망 하나가 교실의 집중력을 바꾼다"
윤 교육장은 '현장 방문'이 상징적 이벤트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 중학교를 혼자 방문했다가 교실과 복도에 방충망이 없어 말벌과 곤충 유입으로 학습 집중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 "자아 보이는 불편이 실제로는 교육활동 전체를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그의 말은 지원행정의 감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여준다.

■ "인천교육의 정체성과 10년... '기초·기본'이 튼튼해야 미래도 선다"
윤 교육장은 인천교육의 과제로 기초·기본 교육의 체감도를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에 충분히 신경 쓰기 어려운 가정, 다문화 학생 증가 등 지역 현실 속에서 기본 학력과 언어 지원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인천국제고, 외고, 과학교, 영재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과 진로진학 지원체계가 확장되며 역전입 사례가 늘어나는 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초가 탄탄해야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변화를 신뢰한다"며 읽건쓰를 통한 기본기 강화가 향후 인천교육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아쉬움으로 남는 장면들... 더 따뜻

하게, 더 배려했어야 했다"
윤 교육장은 정년을 앞두고 "결(그럴 것)"이라는 후회를 솔직히 꺼냈다. 특히 진로진학 지도에서 학교 실적이 매여 학생의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던 순간이 가장 미안하게 남는다고 했다. 반면, 어려운 가정형편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던 학생을 위해 담임교사들과 모금 활동을 조직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치료비를 마련해 수술을 지원했던 경험은 "교육공동체의 힘"을 확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 "퇴임 후의 계획... 진정성 있는 공부, 100대 명산, 그리고 청소년 결의 봉사"
윤 교육장은 자신의 삶을 "20년 공부, 20년 가르침, 20년 교육전문직"으로 정리하며, 퇴임 이후에는 동서양 사상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학습을 통해 "진정성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운동과 등산, 명상과 서예도 계획에 담았고, 무엇보다 청소년기 갈등과 일탈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에 기여해 참여하겠다고 했다.

■ "초심으로 돌아가며... '수구초심'과 화양연화의 감사"
윤 교육장의 마지막 한 문장은 '초심'이었다. 그는 "큰 과오 없이 무탈하게 정년을 맞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야 안다"며 동료·후배·선배의 도움에 감사로 전했다. 그리고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으로 교직 첫날의 다짐을 다시 떠올린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 화양연화(花樣年華)를 선물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윤 건선이라는 이름의 교육자는 퇴임을 맞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학교 현장을 향한다. 결국 교육은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초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까지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 3월 개교 영종 신설학교 현장 점검

인천교육청, 1차 점검서 발견된 미비점 개선 사항 등 확인·현장 애로사항 청취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내 신설학교(인천윤남고, 인천달빛초, 인천윤슬초)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개교업무추진단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지난 1차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통상 5~6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육청은 개교 업무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 과정을



전환경까지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 교육감은 “학교 공간을 학생의 창의력과 확산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교직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AI 시대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지원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개교 전까지 시설·인력·교육과정·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개교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용섭 기자 ays@

계산여고, 학생 주도 탐구 프로젝트 성과 발표

1·2학년 10팀 참여 환경·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 사회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계산여자고등학교(이현주 교장) 학생들이 6개월간 진행한 학생 주도 탐구 프로젝트 ‘SDGs & Reunification, 다시 하나!’의 결과를 새해 첫 등교일인 12일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학생들이 일상과 사회 문제를 연결지어 탐구해 온 것이다.

이번 발표에 1·2학년 학생 10팀이 참여했으며, 각 팀은 환경, 기후 변화, 경제, 과학기술, 예술,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문제를 다루고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1학년 학생들은 SDGs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플라스틱과 우리의 삶’을 발표한 팀은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직접 기록하고 분석해, 개인의 행동 변화뿐 아니라 대체 플라스틱 개발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주 쓰레기, 수거가 아닌 설계로 줄이다’를 주제로 발표한 팀은 우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다루며, 사후 처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초기 설계 단계



에서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기후 변화가 운동선수의 경기력과 훈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발표와, 가상국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회적 위기가 경제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발표가 이어졌다.

2학년 학생들은 ‘Reunification, 다시 하나!’라는 주제 아래 통일을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상의 변화와 협력의 과정으로 바라봤다.

학생들은 예술과 연극을 통해 분단의 감정을 표현하고, 환경과 기후 위기라는 공동 과제가 남북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가정한 스마트 시티 구상, ICT

기술을 활용한 단절 극복 방안,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한 통일 사회 모습 등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발표는 통일을 가상의 공간에서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학생들은 이번 탐구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와 통일 문제 모두 개인, 사회, 국가가 함께 참여해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라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고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안용섭 기자 ays@

시니어 안정적 노후 생활·금융 역량 강화 방법은?

신트리도서관, 시니어 은퇴자산 관리 교육 ‘자산관리 밸류-업 클래스’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관장 정경예)은 19일부터 시니어 은퇴자산 관리 교육 ‘자산관리 밸류-업 클래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주)두나무가 후원하는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로 선정된 신트리도서관

에서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금융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강의는 은퇴 전·후 40~60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이해, 은퇴자산 인출 전략, 자산배분과 안전한 투자 전략, 디지털 자산과 상속·증여 설계 등

은퇴 이후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중심으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소속 전문 강사가 전문 교재를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습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트리도서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니어 이용자들이 금융 불안을 줄이고, 보다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트리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마을교육지원과(032-363-50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용섭 기자 ays@

‘남부 학생살핌 디딤돌’ 개발·보급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 도움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선)은 관내 초등학교에 학기 초 교육과정 운영 도움자료 ‘남부 학생살핌 디딤돌’을 개발·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작한 이번 자료는, 학기 초 교사가 학생 이해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배움 돌음(자아존중, 목표설정) ▲배움 어울림(소통, 협력, 공감) ▲배움 펼침(디지털 시민성) ▲배움 갈무리(성찰, 질문, 성장)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배움 돌음(자아존중, 목표설정) ▲배움 어울림(소통, 협력, 공감) ▲배움 펼침(디지털 시민성) ▲배움 갈무리(성찰, 질문, 성장)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학기 초 학급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며, 실제 수업에 활용도를 높이고자 모듈형으로 설계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자료의 3월 학교 현장 적용 후, 만족도 조사와 우수 사례를 발굴해 보완할 계획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살피는 학기 초 준비가 학교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원스톱 지원

현장지원단 54명 대상 전문성 강화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 학교폭력 원스톱 현장지원단 5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현장지원단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 학교 현장에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보다 촘촘히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연수 과정은 ▲2026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인천형 갈등조정 지원 계획 안내 ▲갈등, 성장의 디딤돌 특강(서울전동초 양미정 수석교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이해 ▲연대와 지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해법 모색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컨설팅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은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원스톱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



원해 존중과 신뢰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지원단은 올해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돕

고 갈등 조정과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중앙도서관, 시민 저자 발굴

도서관 출판창작소 참여자 3월 5일부터 모집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임현자)은 지역 내 역량 있는 시민 저자 발굴을 위한 ‘도서관 출판창작소’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프

로그램은 공공도서관 거점 읽기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도서관의 풍부한 자원과 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이 작가로 데뷔해 자신의 기록을 책으로 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출판 전 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 사서가 기획자로 참여하여 저자 상담을 시작으로 원고 편집, 책디자인, 유통 단계까지 지원하며, 출간된 도서는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정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출판 경험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정보자료과(032-627-8411)로 문의하면 된다. 안용섭 기자 ays@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 “밀라노 동계올림픽, 후회 없이 즐기며 경기할 것”

“많은 분들에게 좋은 추억과 멋진 경기 선보여 드리고파”
“다음 올림픽까지 최대한 오래오래 건강하게 타고 싶어”



올까요?

“제가 ‘스케이트 아메리카 그랑프리’를 끝마치고 구성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싶었고, 더 점수를 끌어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고민해서 잘 수렴된 것 같아서 그 덕분에 구성점도 오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제가 보완해야 할 점은 우선 점프를 좀 더 깔끔하고 견고하게 뛰는 게 제일 최종 목표인 것 같고, 스피드를 조금씩 더 좀 더 과감하게 내서 더 시니어 선수답게 타는 게 더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 이번 올림픽은 AI 기술 도입으로 블레이드(스케이트 날)의 각도, 위치를 정밀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는 심판 판정 참고 데이터로 사용되어 경기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채점 기구가 들어와서 좀 새롭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제가 준비했던 거 더욱더 신경 쓰면서 저는 제 할 걸 하고 이렇게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번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 경기에 대한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이제 경기장 가면은 굉장히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겠지만, 여느 때나 다름없이 제가 그 큰 경기장에서도 긴장감과 맞서 싸워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추억과 아주 멋진 경기 선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 지난해 회장배 랭킹대회부터 쇼트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특히 프리 스케이팅 경기의 경우 경기를 할수록 점점 더 표정이 다양하고 표현력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경기할 때 특별히 의도를 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기 때문만이 아니라 연습할 때도 똑같이 표정 연습, 표정 연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경기 때 잘 보여진 것 같아서 저 또한 너무 기쁘고, 제가 아직 선수로서 노력하다는 생각은 아직

안해봐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표정 연기에서 조금 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 이번 올림픽은 AI 기술 도입으로 블레이드(스케이트 날)의 각도, 위치를 정밀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는 심판 판정 참고 데이터로 사용되어 경기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채점 기구가 들어와서 좀 새롭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제가 준비했던 거 더욱더 신경 쓰면서 저는 제 할 걸 하고 이렇게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본인에게 피겨스케이팅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겨 스케이팅은 제가 뭐가 하나의 책을 써 내려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스케이팅 탈 때도 위로도 되고 뭐가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에도 스케이팅 타면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 신기한 존재인데 앞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책에 써 내려갈지 또 너무 기대되고 더 좋은 내용을 써 내려가려고 더 노력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그동안 수많은 대회를 출전했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멘탈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컨디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종목은 강기간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각오 등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출전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는 오래오래 스케이팅 건강하게 타고 싶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이 아니라

뭔가 제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올림픽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후회 없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더 골똘히 하면서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급한 듯하지만 혹시 다음 올림픽 출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 정말 나오고 싶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오래오래 건강하게 타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음 올림픽까지 건강하게 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해인 선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의 행복을 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저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한동안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올림픽 출전을 이뤄낸 그가 이번 밀라노 올림픽 아이스링크의 단단한 은반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또한 다음 올림픽에도 그가 말하듯 ‘건강하게’ 스케이팅을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며 자신만의 이야기로 ‘피겨’ 책을 써 내려갈 이해인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박근혜 기자 pkh@

지난 1월 ‘제8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쇼트 프로그램의 부진을 프리 스케이팅에서 만회하며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이해인 선수를 출국 전에 만나 올림픽 출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올림픽 전에 경기에 한 번 더 나가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중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이제 대회 때 느끼는 긴장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제 기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2026 ISU 피겨 스케이팅 사대륙 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전 최종 점검을 하는 성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를 하면서 구성점이 꾸준히 오르고 경기력도 안정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에 대해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

■ 안녕하세요 이해인 선수, 우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축하합니다. 이번 올림픽 출전은 아무래도 해인 선수한테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제가 출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행복의 눈물을 흘리셔서 더 값지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 지난 1월 열린 ‘2026 ISU 피겨 스케이팅 사대륙 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 모두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력이 곧 출전할 올림픽 경기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올림픽 전에 경기에 한 번 더 나가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중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이제 대회 때 느끼는 긴장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제 기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2026 ISU 피겨 스케이팅 사대륙 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전 최종 점검을 하는 성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를 하면서 구성점이 꾸준히 오르고 경기력도 안정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에 대해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조달청우수제품지정업체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KEVIC 주식회사 케빅
Professional Audio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김석준 교육감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

부산교육청, 6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공약사업 점검 결과 순조로운 이행상황 확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교육감 재선기 이후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며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사업 평가는 지난해 8월 공개모집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 등 32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 실시했다. 6대 영역, 21개 과제, 73개 공약사업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 노련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공약사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점 공약사업인 사

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가칭)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등이 차질 없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낸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jlh@

부산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관광마이스분야 핵심 인재 양성... 지역 정주 여건 등 선순환 체계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월 10일 오후 교육청 회의실에서 관광마이스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부산관광고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청, 지자체, 특성화고, 기업, 대학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부산관광고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교육청과

부산시, 부산서구청, 학교, (주)백스코, 부산관광공사, 동서대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추진 성과와 올해 한 해 추진계획,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체 교육참여 확대, 현

장 중심 실습 강화, 대학 연계 후 학습 체계 구축, 성과관리 고도화,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정주 기반 인재 양성 체계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 교육을 연결하여 지역정주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학교를 키우는 선순환의 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jlh@

예비 사회인 맞춤형 진로 설계 돕는다

부산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협업

부산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허영숙 센터장)가 지역 내 예비 사회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2월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실질적 지원 사업

으로, 센터가 엄선한 분야별 전문 상담가들이 현장에 투입돼 청년 학습자들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풍부한 교육 경험을 축적해 온 센터의 역량을 청년층까지 확장해, 단순한 직업 정보 제공을 넘어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커리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표준화된 진로직성 검사와 심리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가치관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게 된다.

특히, 진로에 대해 막연한 고민

을 안고 있던 청년들에게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맞춤형 조언이 더해져 자신감 회복과 주도적 자립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허영숙 센터장은 “진로는 특정 시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여정”이라며,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공백 없는 진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영숙 기자 hog@

김광명 부산시의원, 남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구의원·시의원 모두 거쳐... 경험과 실행력으로 남구 도약 이끌겠다”

김광명 부산시의회 의원(남구4)이 2월 12일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신뢰와 실행’을 앞세운 남구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원과 시의원을 모두 경험한 현장형 정치인으로서 남구 주요 현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모두 거친 보기 드문 이력의 정치인이다. 구정과 시정의 구조를 동시에 이해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남구 사업이 예산과 행정 절차의 벽에 막히지 않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와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 구청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율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 구조를 잘 아는 실무형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항선 트램 추진 기반 강화 ▲용호동 금융 특화 교육 모델 구



김광명 부산시의원(가운데)이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장에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축 ▲문현동 고등골 체육행정복합청사 운영 고도화 ▲유엔기념공원 일대 평화·문화벨트 조성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공공 중심 개발 방향 모색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각 사업을 개별 공약이 아닌 ‘남구 미래 성장 축’으로 묶어 교통·교육·문화·산업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품격에 대한 주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신뢰를 가장 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행정 운영 방

침을 제시하며 “안정 속 도약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출마를 두고 “경험과 실행력을 갖춘 실무형 후보의 등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초·광역의회 경력을 모두 갖춘 점은 남구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추진력을 더할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남구의 미래는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며, “행정 조직과 지역 사회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율하고 정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기자 syw@

부산연탄은행, 설 맛이 따뜻한 나눔

부산남구 일원서 여야 구의원들과 함께 봉사활동 동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철)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13일 오후 4시 부산남구 일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부산연탄은행은 매주 5회 지역 어르신공동체 방문을 통해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 있고 특히, 매주 화요일은 국가유공자를 보훈가족들에게 따로 특별한 나눔을 전하고 있다.

이날은 부산남구 보훈회관을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을 위해 무궁해 쌀 100포와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어 용호1동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라면 50박스를 후원하며 온정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용호1동 황오규 주민자치위원장과 용호1화요일은 국가유공자를 보훈가족들에게 따로 특별한 나눔을 전하고 있다.

강정철 대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과 지역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도 부산연탄은행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 현장에는 부산 남구 지역구 박수영 국회의원과 김광명

시의원, 고선화 남구의회 부의장, 박미순, 박구슬, 김근우, 백석민, 허미향 구의원이 함께해 물품 전달과 현장봉사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물품을 나르며 보훈가족과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여야 구의원들이 함께해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박수영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부산연탄은행 강정철 목사님께서 부산의 많은 곳 중 남구 보훈회관을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 또한 위트컴 장군 동상 설립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들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강정철 대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과 지역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도 부산연탄은행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jlh@

Beautiful 4 years —

신라대학교

이씨의 주인공은 나야!

스스로, 신나게, 나★답게!

Beautiful 4 years— 신라대학교

★신라대움 교육은? 미래유망실용교육과 개인맞춤형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미래리더를 키워니다

양현준 작. Adult Child 양현준 작가는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과정 졸업생입니다. 홍콩, 스페인의 마드리드, 뉴욕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작품 'Adult Child' 시리즈를 통해 스타작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대학교 웹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SILLA university 1954

충북교육청, 현장 맞춤형 학교지원 본격화

학교지원 사업 추진 성과 '학교를 돕다, 함께 성장하다' 책자 발간 예정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9일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6년 현장 맞춤형 학교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학교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지원 기준과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등 학교가 체감하는 맞춤형 학교지원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학교안전보안관 시범사업을 도입해 도내 15개 학교의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불용

물품 폐기 처리 지원 사업을 신설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침해 사안 발생 시 단기수업지원 강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강사수급이 어려운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지원 강사 수당을 인상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사들이 바로 따라 쓰

며 활용할 수 있는 '학급운영비 한 방에', '나이스 도우미' 등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교평가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여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윤건영 교육감은 "2025년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출발점으로, 인력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 중심의 학교지원을 꾸준히 추진한 한 해였다"라며 "2026년에는 학교마다 다른 여건을 반영한 지원을 통해, 학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인력 지원과 행정 업무 경감 중심의 학교지원을 지속해 왔다.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초등 수업지원강사, 짝꿍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수업과 학급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했으며, 학교업무바로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의 업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러한 2025년 학교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학교를 돕다, 함께 성장하다' 책자로 발간해 학교지원의 방향과 변화를 현장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기성 기자 ygs@

이주배경학생 10년 새 2.5배 증가

충북교육청,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지원 체계 강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이주배경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이주배경 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충북 도내 전체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5년 3,263명에서 2025년 8,117명으로 10년간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학생은 최근 5년 사이 약 2.3배 늘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이 15% 이상인 밀집 학교도 7개교에 이르는 등 학교 현

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구축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도내 28개교에서 33개의 한국어학급을 운영해 집중적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과 연계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통해 입학 초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등 한국어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의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를 위한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하고,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정원 외 선배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의 진학 지원도 강화한다.

유기성 기자 ygs@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충북교육청, 최기현 주무관 '최우수'... 관행 벗어나 공공 이익 도모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9일 교육감실에서 관행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실용적인 행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시상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각급 기관(학교)에서 제출한 사례 중심으로 ▲공익기여도 및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 5개 항목을 심사하여 선발하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선발 인원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이다. 최우수에는 교원인사과 최기현 주무관이 선발됐다.

최기현 주무관은 외부 예산 투입 없이 내부 협업을 통해 예산 기안 고시 관리 감독관 선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선순위에 무작위 방식을 결합한 공정한 배정 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과 선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우수'에는 제천학생회관 최정희 총무팀장과 청주하이테크고등학교 신신화 주무관 등 2명이 선발됐다.

최정희 총무팀장은 '책'을 물 저수조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집먼지 먼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천시 수



도사업소와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노후 수도관을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 환경을 조성했다.

신신화 주무관은 학교 시설 공사로 인한 주차 문제를 '학교-아파트 벽을 허문 상생 사업'으로 해결해 학생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연계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장려'는 총무과(전 예산과) 이재성 주무관, 재정복지과 음철이 주무관, 단양교육도서관 서현희 관장 등 3명이 선발됐다.

이재성 주무관은 ChatGPT와 엑셀·파이썬을 활용하여 예산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 설명서를 제작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정확

성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다.

음철이 주무관은 공무원 수당을 유형별로 정비하고 급여 업무 안내를 개선해 과오 지급을 예방하고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했다.

서현희 관장은 독서심리상담사를 공공도서관에서 자체 양성해 지역 아동·청소년의 정서 돌봄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 주신 실천이 우리 교육청이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시선으로 의미 있는 가치가 현장 곳곳에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 국제교육원, 지역 학생 영어 교육격차 해소 도모

기초학력 향상 '감동영어교실' 운영... 원어민 교사 직접 방문 맞춤형 학습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원장 서강석) 북부운영팀은 지역 학생들의 영어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연중 프로그램으로 '감동영어교실'을 운영한다.

'감동영어교실'은 영어 수업 기회가 적은 제천 지역 8개 지역아동센터와 제천·충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원

어민 영어교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관별 일정에 따라 연 3~4회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파닉스 기초 학습을 바탕으로 한 놀이·활동 중심 수업으로 구성되며, 영어 듣기·말하기 등 기초 영어 학력 향상과 함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고려한 체험형 수업으로 진행

된다.

수업은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준별로 편성해 운영하며, 올해 약 695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생활지도와 안전 교육은 기관 교사와 협력해 실시한다.

곽경숙 제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서강석 국제교육원장은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기초 영어 학력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영어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교육청, 방과후·돌봄 활성화

윤건영 교육감, 청주 봉명·영운 지역아동센터 방문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9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방과후·돌봄 활성화 위해 청주시 봉명 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수연)와 영운 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경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 중심의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와 연계한 '충북 나무 방과후·돌봄(늘봄학교)'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 중인 돌봄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참여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놀이 활동을 함께하는 등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아동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방안 ▲방과후·돌봄의 질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결합될 때 완성도 높은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서로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온돌네 방과후·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충북교육청, 학교 밖 배움 넓힌다

지역 인적·물적 자원 연계 '온마을배움터' 사업 확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학교 교육과정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는 '충북온마을배움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마을배움터는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협력 사업이다.

올해 충북교육청은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영어, 진로, 인문·예술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환경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온마을배움터 개방형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 온마을배움터 사업은 총 7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유기성 기자 ygs@

100% 참자연 그대로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보리, 현미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은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 행사, 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 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영광 불갑초, 청소년 로봇전국대회서 ‘협동상’

“방과후·방학 활용한 로봇 설계와 코딩 결실... 세계대회 진출로 미래 향한 도약”

전남 영광 불갑초등학교(교장 최철호) 학생들이 세계적인 청소년 로봇대회인 FIRST LEGO League (FLL) 본선 대회에서 “Teamwork Award(협동상)”를 수상하며 세계 대회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2월 12일 밝혔다.

불갑초 학생들로 구성된 팀 ‘Everybody ChuChu’는 최근 열린 FLL 본선 대회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뛰어난 협동 역량을 인정받아 본상인 ‘Teamwork Award’를 수상했다. 팀원 간의 배려와 소통, 역할 분담, 공동 문제 해결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지도교사 김민석 교사의 지도 아래 불갑초 학생 이○○, 김○○, 김○○, 서○○, 정○○, 김○○, 김○○, 문○○, 송○○, 오○○



학생은 그동안 방과후 시간과 방학을 활용해 로봇 설계와 코딩, 프로젝트 연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팀원 모두가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FLL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AM) 분야의 융합 역량을 기르는 세계적인 청소년 로봇대회로, 매년 전 세계 약 110개국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다. 이번 수상을 통해 ‘Everybody ChuChu’ 팀은 대한민국 대표로 4월말 미

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FIRST Championship에 참가하게 된다.

김민석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며, “세계 무대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갑초등학교 나온경 교감은 “이번 성과는 작은 학교에서도 세계를 향한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갑초 ‘Everybody ChuChu’ 팀은 세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STEAM 인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률안 상임위 통과 “환영”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육재정·교원 정원·유학생 특례 반영 입법 과정서 지속 노력”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한 것과 관련해 2월 1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교육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전남광주권 핵심 성장축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남교육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의 소극적인 대응과 의지 부족으로 당초 기대에 비해 일부 핵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현재 법률안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유학생(외국인 학생) 관련 특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유아·특수·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자율성 및 다양성

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과 조직, 정원에 관한 권한 역시 균형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교육계·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별도 특별법 발의, 신속한 법률 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교육재정·교원정원·유학생 특례를 포함한 교육분야 핵심 과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화순교육지원청, ‘NEXT 화순교육’ 다짐 행사 성황

김대중 교육감·이호범 화순부군수 등 700여 명 참여 미래 화순 교육 참여 의지 표명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은 2월 12일 화순하늬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NEXT 화순교육’ 다짐 행사를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순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공유하고, 미래(NEXT) 화순교육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현장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이호범 화순부군수, 도·군의원, 지역사회단체장을 비롯해 학부모, 마을교육 활동가, 일반 군민 등 7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매워 화순교육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내외빈과 군민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이번 자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서로의 눈빛과 박수로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는 모습에서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깊은 정서적 울림과 벽천 감동을 선사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 중심 글로벌 교육 가치 확산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 정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 미래교육의 핵심과제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포하며 화순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지역민은 “그동안 화순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감할 기회가 적어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되었다”며, “화순교육의 탄탄한 저력과 미래 비전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역민으로서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현 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자부심을 품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마음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화순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나주교육지원청, 전남 첫 데이터 급식 행정

식재료 시장조사 용역으로 품질·투명성 동시 확보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은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식재료 구매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전남 지역 최초로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용역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영양(교)사가

직접 시장조사를 수행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통 환경의 변화로 적정 식재료비 산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시장조사 업무를 전문 가격조사기관에 위탁해 월별 물가동향과 품목별 시장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의 기초자

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정빈 교육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전남 최초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학교급식 행정 표준의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전문가와 학교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황진성 기자 2580news@daum.net

함평 해보초 전상현 교사 ‘통합교과 수업 대백과 152’ 출간

실천 수업 사례 수록 그림책·놀이·AI 활용부터 무료 학습지 QR코드 제공까지

해보초(교장 신미경) 전상현 교사가 1.2학년 아이들과 부대끼며 실천했던 수업 사례 중에 152가지 핵심 수업을 엮어 ‘초등 통합교과 수업 대백과 152’를 출간했다.

이 책에 담긴 교실 속 통합교과 수업 아이디어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1학년의 학교 적응 활동부터 2학년의 자아 및 세계 탐구까지 아이들의 성장 흐름에 맞춘 주제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수업부터 메이커 활동, 그리고 최신 에듀테크인 AI(인공지능) 활용 수업까지 다채롭고 창의적인 수업 방식을 담았다.

또한 학교, 사람, 우리나라, 나,



전상현 해보초 교사

마을, 세계 등 교과서 주제별로 수업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수업 사례마다 ▲생생한 수업 사진 ▲한눈에 들어오는 수업 흐름도 ▲준비물 및 활동 순서 ▲저자의 노하우가 담긴 ‘수업 사전’을 배치하여, 책을 펼치면 누구나 즉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했다. 아울러 수업에 필요한 모든 학습지는 QR코드를 통해 한글 파일로 무료로 내려받아 학급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전상현 교사는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통합교과를 어떻게 가르치지?’라며 막막해하는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교과서 활동 외에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하나씩 실천하며 모은 이 책이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도구이자,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홍석범 기자 2580news@daum.net

전남형 꿈실현 교육모델 ‘안착’

전남교육꿈실현재단, 꿈 실현 인생학교 운영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 2월 10~11일(목포대), 11~12일(순천대) 양일간 ‘꿈 실현 인생학교’를 초등 5~6학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도내 초등학생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올해 1년간 도전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계하는 ‘꿈 세움 과정’을 진행했다.

‘꿈 실현 인생학교’는 꿈을 단순한 ‘희망 직업’이 아닌 자기주도적 경험을 통해 미래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전남형 꿈실현 교육 모델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상표등록까지 마쳐 브랜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

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꿈 세움 과정’은 ▲나 발견 ▲꿈 발견 ▲꿈 디자인 ▲꿈 발표·공유 등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 대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자신의 관심과 감정을 탐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간 실천할 구체적인 도전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주식회사 한스쿨

한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전북교육청, 2025년 재정집행 목표 달성

인센티브 70억 원 확보... 기관·부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 목표 96% 이상 달성,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수결손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 및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을 통해 상반기 신속집행 20억 원, 재정집행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같은 성과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재정집행 상황 분석, 시설비 부진 사유 개선, 이월 사업의 상반기 적극 집행 독려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특히 매주 재정집행 현황 공개, 분기별 교육지원청 재정집행 현장 점검 실시, 이월 사업 및 주요 시설 사업의 집중 관리, 재배정 예산 집행 독려 등을 통해 이·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설비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했고, 겨울방학 공사는 설계비만 편성하는 등 공정을 확인하며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편성도 꼼꼼하게 재원을 배분한 만큼, 적기 예산 투입을 통해 교육정책의

효과가 두드러지도록 상반기부터 적극 집행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집행 목표 달성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수업혁신 성장인증 교사 38명 배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수업의 진심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5층 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중등교사 수업혁신 성장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교실수업 혁신을 선도한 우수교사를 인증했다.

'중등교사 수업혁신 성장인증제'는 교실을 연구하고 수업을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성장 중심 제도로, '해봄교사·성장교사·이룸교사'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해봄교사는 수업을 실천하고 나누는 단계라면, 성장교사는 수업을 설계를 지원·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 단계인 이룸교사

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혁신을 이끄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활동 수준과 점수 기준이 상향되며, 개인 연구에서 출발해 공유와 확산을 거쳐 현장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모델이다.

2025학년도에는 1단계 31명, 2단계 19명 등 총 50명이 도전해 1단계 심사를 거쳐 해봄교사 24명, 성장교사 14명 등 최종 38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교사들은 향후 수업설계

코칭, 연수 강사 활동, 수업혁신 지원단 참여 등 수업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운영 고도화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해 제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연구하는 교실과 나누는 수업 문화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의 변화가 곧 전북교육을 바꾸는 힘"이라며 "수업에 진심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혁신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주·군산·장수 학교 4곳 새학기 3월 개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시 송천동의 전주술내유치원, 군산시 내흥동의 군산새빛유치원과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군 계북면의 덕유샘학교 등 총 4개 학교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술내유치원은 16학급, 군산새빛유치원은 14학급, 군산내흥초등학교는 25학급, 덕유샘학교는 7학급 규모로 신입생을 맞이한다.

전주술내유치원,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는 전주와 군산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학생 증가에 따라 문을 열게 됐다.

장수 옛 원촌초 부지에 들어서며 덕유샘학교는 동부산악권 특수학교로, 장수와 무주, 진안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직원 발령 등 신설학교에 대한 개교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교 전까지 세부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학생 유권자 현명한 선택 돕는다

헌법교육·선거교실·선거연수원 전문가 특강 등 참정권 교육 강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한 참정권교육을 강화한다.

'참여와 협력,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비전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선거의 의미와 원칙을 이해하고, 능동적인 시민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뒀다.

특히 단순히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나의 목소리가 어떻게 세상의 규칙을 바꾸는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주권자'로의 관점 변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헌법교육 △선거교실 운영 △선거연수원 전문가 특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활성화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은 미래 유권자 교육, 새내기 유권자 연수, 다문화 가족 연수, 장애인 유권자 연수, 월드카페 토론교실 등 5가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선거 전 교원 대상 선거교육도 운영한다.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들을 강사로 초빙해 △선거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자료로 보는 대한민국의 70년 이야기 △사제로 보는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등을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선거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주권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완주교육지원청, 지역 소개 영상 제작

초등 3학년 사회과 교재 연계 동영상 33편 제작·보급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2026학년도 초등 3학년 사회과 지역화 보조교재와 연계하여 '완주 지역 소개 동영상'을 제작, 신학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동영상은 완주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임진왜란 웅치·이치 전적과 같은 역사, 다양한 문화, 주요 기관 등을 소개하는 시청각 학습 자료이다.

AI 기술을 도입해 지역화 보조교재에 등장하는 남·여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됐다.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도록 각 영상은 2분 이내의 짧은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주인공 캐릭터의 설정과 함께 적절한 애니메이션을 삽입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특히 완주 관내 초등학교들이 참여해 제작된 이 동영상은 사회과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기 유발이나 보조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각 동영상마다 QR코드가 제공돼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손쉽게 시청할 수 있어 반복 학습과 가정 연계 학습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민 교육장은 "완주 지역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동영상 자료가 수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만학도 123명 꿈에 그리던 감격의 졸업장 받아

전북교육청, 87세 최고령 포함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여식 개최



87세 최고령을 포함한 123명의 만학도들이 감격의 학교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도내 11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초등(95명)·중학(28명) 3단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 학습자 123명이 학력인증서를 받았다.

초등 교육을 받은 87세 할머니 등 어려서부터 배움의 끈을 잡지 못한 늦깎이들이 이번엔 꿈에 그리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것이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졸업 학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움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타의 모범이 된 학습자 24명과 문해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원 10명에게 교육감상이 수여됐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영광스러운 결실을 보신 모든 학습자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든 도민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A.T PROGRAM (AI + Touch My Dream)

"내 아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검사"

M.I.T

마음지능검사 (Mind Intelligence Test)

- 1 100가지유형 기질검사
- 2 자기주도학습태도검사
- 3 강점지능검사
- 4 성품검사

M.E.T

마음에너지검사 (Mind Energy Test)

- 1 유전자지문적성검사
- 2 학업스트레스검사

With You Program

함께라면 (With You Program)

- 1 진로프로그램
- 2 소통프로그램
- 3 마음알아주기 프로그램

행복한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기업 **적성과미래** | 상담문의 1544-3105 | 홈페이지 www.kgatest.com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문자에 새겨진 나침반(東西南北)

우리는 '동서남북'을 너무나 당연하게 쓴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서쪽은 해가 지는 곳, 남쪽은 따뜻한 곳, 북쪽은 차가운 곳. 그러나 이 네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곰곰이 물어본 적이 있는가. 방향이라는 추상 개념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고대인의 삶과 도구, 그리고 눈앞의 자연을 관찰한 결과였다.

이에 갑골문 해석은 흥미로운 시각을 던져준다. 전통적 해석은 '동(東)'을 나무와 태양으로, '서(西)'를 새의 보금자리로 풀이하지만, 이 강연은 생활사적 흔적에 주목한다. 즉, 방향 문자는 일상 도구와 행위에서 비롯되었고, 후대에 의미가 정제되어 오늘날의 동서남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림 17] (東, 西, 南, 北)자의 형성과정

Table showing the evolution of characters for East (東), West (西), South (南), and North (北) from Oracle Bone Script to Modern Hanja.

남(南) - 악기와 따뜻한 바람 '남쪽'은 의외로 음악과 관련이 깊다. 은하에서 출토된 고대 악기 모양의 도상이 곧 '南'의 초기 형태라는 해석이다. (그림 17) '南' 참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발음이다. 고대 중국어에서 '南'[남]과 '暖[따뜻하다]'[난]의 발음이 비슷했다. 이 때문에 악기의 이름이 따뜻한 방향, 곧 남쪽을 가리키는 말로 차용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남쪽을 따뜻한 지역으로 인식한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 남쪽은 햇볕이 강하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골문 속 남자는 단순히 기후적 특징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던 악기의 이미지와 언어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문자에 담긴 남쪽은 따뜻한 바람처럼, 음악처럼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방향이었다.

북(北) - 그림자의 방향 네 방향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北'이다. 갑골문 속 '北'은 등진 두 사람처럼 보인다. 왜 사람 둘이 서로 등을 지고 있을까? (그림 17) '北' 참조

설명은 이렇다. 고대인은 늘 남쪽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남쪽을 마주할 때, 사람의 그림자는 북쪽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곧, 그림자가 지는 방향이 북쪽이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문자의 형태로 옮기기 어려웠다. 그래

서 사람 둘이 서로 등을 지고 선 형상으로 단순화한 것이 오늘날의 '北'자가 되었다.

북쪽은 차갑고 음울한 방향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갑골문 속 북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태양과 사람, 그림자의 구체적 경험에서 비롯된 상징이었다.

문자 변천과 해석의 여지 동서남북 네 글자는 갑골문에서 출발해, 금문과 소전, 해서로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굳어졌다. 처음에는 그림에 가까운 표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단순화·도식화되었다.

강연자는 이 과정에서 주류 문자학의 해석, 특히 '동=나무와 태양' 같은 전통 설명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대신 고고학 유물, 생활 도구, 풍습을 바탕으로 새 해석을 제안했다. 물론 이는 추정과 상상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문자학·고고학의 더 많은 증거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문자는 삶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동서남북은 단순한 나침반의 방위기 아니다. 그것은 고대인이 들었던 자루, 썼던 향아리, 울려 퍼지던 악기, 그리고 태양 아래 드리운 그림자의 기억이다. 우리는 그 기억을 문자라는 껍질 속에 간직한 채 오늘도 "동쪽 해가 떴다" "서쪽 하늘이 붉다" 말하고 있다.

이제 동서남북을 떠올릴 때, 단지 지리적 방향만이 아니라 그 속에 새겨진

고대인의 삶과 상징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 문자가 곧 문화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쓰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새로운 풍경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한자는 풍경이요, 스냅 샷이요, 압축 파인인 것이다.

안눈에 보는 동서남북 문자 기원 동(東) : 자루 그림 → 해 뜨는 쪽 (사냥·채집의 시작)

서(西) : 물향아리 그림 → 하루 끝, 해 지는 쪽

남(南) : 악기 모양 → 따뜻한 발음과 연결 → 남쪽

북(北) : 사람+그림자 → 그림자가 향하는 쪽 → 북쪽

방향은 언제나 길을 찾게 해준다. 그러나 문자가 말하는 방향은 단순한 나침반의 좌표가 아니다. 그것은 고대인의 눈과 손, 그리고 삶의 궤적이 새겨진 문화적 나침반이다. 오늘 우리가 동서남북을 부르는 순간, 사실은 수천 년 전의 사냥꾼, 농부, 음악가, 제사장의 세계와 조용히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Yoo Woo-gyun, Director of the Korea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럼

'독서국가'의 선언, 그러나 사서교사는 어디에 있는가?

"사서교사는 독서국가의 장식물이 아니라 엔진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가 '독서국가'를 선포했다는 소식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매우 반가운 사실이다. 문해력 저하, 사고령 빈곤, 학습격차 심화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독서를 국가 교육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은 분명 시대에 부응한 요청이다. 그러나 선언은 시작일 뿐이다.

정책은 사람을 통해 구현된다.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사서교사의 전국 배치율이 16%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은 '독서국가'가 아직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서교사는 단순히 책을 정리하고 또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다. 교과 수업과 연계한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

는 교원이다. 핀란드나 독일 등 독서 선진국에서는 학교 도서관과 사서교사가 교육과정의 한 축을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도서관에 있어도 사람은 없다"는 말이 교육 현장의 자조처럼 회자되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의 사서교사 양성 과정에 있다. 현재 사서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양성과정은 극히 제한적이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일부 대학에서만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년 배출 인원도 매우 적다. 그 결과 임용시험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극소수만 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시 사서교사들은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다 결국 진로를 포기하거나, 기간제·비정규

직 형태로 현장을 떠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양성과정의 질적 수준이다. 많은 과정이 여전히 '도서관학'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역량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 중학교에서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와 협력해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려 했지만, 협력수업 경험이나 교육과정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낯설지 않다.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양성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한 구조의 문제다.

현장 사례는 사서교사의 효과를 분명히 증명한다. 사서교사가 상주하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10분 독서'

가 형식이 아닌 생활이 되었다. 교과 연계 독서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책을 '과제'가 아니라 '생각의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글쓰기와 토론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반면 사서교사 없는 학교에서는 도서관이 자율실로 잠긴 채 창고처럼 방치되거나, 단순 대출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속 교사 또한 학생 앞에서 책 한 권을 선도해 읽는 학교 문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서 격차는 곧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립대학과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사서교사 전공 트랙을 신설하고, 안정적인 임용 규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양성과정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이해, 수업 설계, 교과 협력,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핵심 역량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셋째,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연수 과정도 적극 도입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패러디한 것이다. 한때 일본은 책 읽는 민족으로 널리 알려졌었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 27명을 배출한 선진국으로 변모했다. "내 인생의 8할은 어려서 마을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는 빌 게이츠의 말은 이미 널리 회자된 바가 있다. 역사상 물줄기를 크게 바꾼 세계적 위인들이 한때 책 읽기에 몰입한 '독서광'이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서사로 전해지고 있다.

'독서국가'는 책의 양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질문하고, 연결하고, 사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사서교사는 독

서국가의 장식물이 아니라 엔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그 엔진을 키우겠다는 국가의 실질적인 결단이다. 사서교사 양성이나 임용 없는 독서국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즉,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다시금 확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In Guk,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 흥 제 의 목 요 칼 럼

성공을 가르친 교육, 침묵을 배운 사회

엡스타인 사건이 한국 교육에 던진 질문

2019년 미국 금융가이자 사교계 인사였던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이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엡스타인은 정계·재계·학계·문화계 가릴 것 없이 돈과 권력, 명성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자신의 섬으로 초대했다. 그 섬은 나중에 미성년 피해 여성들이 최소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장소였다. 초대받은 사람 중에 성착취를 했다고 인정된 사람은 없다. 이들의 성범죄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엡스타인 파일 속에 담긴 수많은 이메일과 사진 뿐이다.

엡스타인 사건의 핵심은 범죄의 잔혹성만이 아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단죄되지 않았는가에 있다. 많은 사회

유명 인사들이 그와 교류했지만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권력자들의 네트워크는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엡스타인은 투자은행 베어스틴스에 입사하기 전에는 사립학교 교사였다. '엡스타인 사건' 연루 주요 인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빌 게이츠 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노름 촘스키 교수, 영국 앤드루 전 왕자, 비르제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총재 등이다. 그 명성이 충격적이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은 한 범죄자의 타락으로만 읽기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것은 권력, 돈, 명성이라는 이름의 '성공'이 어떻게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키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한국 교육은 오랫동안 '어디에 들어갔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다.

명문대, 대기업, 고소득 직업. 어릴 때부터 성취와 경쟁의 언어로 살아왔다. 성공의 기준이 단선적이다. 그럴수록 성공을 둘러싼 윤리적 질문은 주변으로 밀려났다. 엡스타인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위는 때로 면죄부처럼 작동했고 주변의 엘리트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능력과 네트워크가 도덕적 판단보다 앞설 때 사회 정의는 쉽게 무너졌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라캉의 말을 보면 인간은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권력과 부, 명성과 네트워크는 곧 상징계에서의 승인이다. 엡스타인은 그 상징적 권력을 매개로 욕망의 중심에 서 있었고 많은 이들은 그 주변에서 침묵을 선택했다.

우리는 무엇을 성공이라 가르쳐왔는가. 명문대, 자산, 인맥을 향한 경쟁 속

에서 '타자의 욕망'을 내면화하도록 교육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공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윤리적 주제 대신 상징적 지위를 쫓는 주제로 학생을 길러낸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라캉에게 욕망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자각하고 책임져야 할 구조다. 교육은 바로 그 책임을 가르치는 장이어야 한다.

엡스타인 사건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욕망을 성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주제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하는 것이다.



Kim Heung-je, Professor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구 본 희 시 選

약 손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우면 투박한 손마리가 마른 배를 떠돌는다

"엄마 손은 약손" 낮은 무릎에 동등은 잠들고

눈을 뜨면 아들은 먼 데로 물러나 있다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서로의 상처를 칼위는 시대

조견 없이 떨어 줄 그 손질이 유난히 그리다

그 손 끝에서 시작될 평온한 하루를 다시 기다려 본다

인생이다.



Gu Bon-hee, Professor at Jeonju National University

<https://worldfurni.com>



부산·경남 가구 조달 판매 1위

WORLD FURNITURE

상담전화
1588-3886

 **월드퍼니처**
www.worldfurni.com

**학교 교육용 가구 전문 생산업체 월드퍼니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품질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연계고용담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시담
하여 계약을 체결

BENEFIT 03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 가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